

제목	옥빛 박, 새하얀 속살		
소속 대학	한림대학교	소속 학과	청각학과
학 번	2024*****	이름	이**

옥빛 박, 새하얀 속살

- 여름이 깊어지면 떠오르는 어머니의 박나물

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다. 살얼음 동동 띄운 콩국수, 손등에 흐르는 수박물, 그리고 어머니의 박나물. 박나물은 흔히 보이는 반찬도 아니고, 식당 메뉴판에서 본 기억도 없다. 그런데도 한여름의 햇볕이 등을 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혀끝에 떠오르는 것은 그 차가운 박나물의 식감이다. 그것을 떠올리려면 나는 중학교 2학년의 어느 여름 부엌으로 돌아가야 한다.

그 시절 우리 집은 화목했다. 정확히 말하면, 화목하다고 믿을 수 있었다.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가족이라는 모양을 잃지 않도록 버텨낸 사람은 어머니였다. 자기 말만 옳다고 믿는 사람과 한 식탁에 앉는 일은,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다. 그러나 그날의 부엌만큼은 그런 무거운 공기와 무관한 자리였다. 어머니와 나, 그리고 옥빛이 도는 커다란 박 하나가 전부였다.

어머니가 따 온 박은 내 두 손으로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 컸다. 표면에는 열은 옥색이 감돌았고, 어딘가 도자기처럼 차분한 윤기가 있었다. 어머니는 그것을 도마 위에 올리고, 가느다란 팔로 큰 식칼을 들었다. 칼을 내리꽂는 순간, 단단하던 박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썩, 하고 갈라졌다. 햇볕에 그을린 얇은 팔이 묵직한 칼을 다루는 그 모습은 어린 내 눈에 어딘가 비현실적이었다. 평소엔 늘 누군가에게 양보하던 사람이, 그 순간만큼은 무엇 하나에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.

어머니가 나를 부르더니 손가락을 쥐여주었다. 씨를 긁어내고 속을 파보라고 했다. 옥빛이 도는 단단한 껍데기 안에는, 뜻밖에도 눈처럼 새하얀 속살이 있었다. 그 대비가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. 손가락을 밀어 넣자 박은 딱딱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은, 어딘가 단단하면서도 양보해 주는 듯한 감촉으로 부드럽게 떠올라왔다. 스, 스. 손가락이 박 속을 미끄러질 때마다 작은 만족감이 손끝으로 전해졌고, 나는 어느새 박을 파는 일에 푹 빠져 있었다. 그동안 어머니는 옆에서 내가 파낸 속살을 모아 칼로 속속 잘라냈다. 그 칼질 소리, 도마에 부딪히는 박의 둔한 박자, 가스불 위에서 끓기 시작한 물소리. 그 여름 부엌의 모든 소리는 묘하게 다정했다.

어머니는 잘게 썬 박을 끓는 물에 잠깐 데쳐 곧바로 차가운 얼음물에 담갔다.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빠르게 통과한 박은, 마치 단단한 흰 살 회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. 어머니는 밥을 푸라고 했다. 갓 지은 밥과 몇 가지 밑반찬, 그리고 그 차가운 박나물이 식탁에 올라왔다. 초고추장에 박나물 한 점을 찍어 입에 넣는 순간, 달큰하고 새콤한 양념 뒤로 단단한 박이 툭 하고 끊어졌다. 그러더니 그 안에 갇혀 있던 차고 맑은 물이 입 안으로 번졌다. 더위에 늘어져 있던 몸이 그 한 점에 곧추 서는 느낌이었다. 그 여름, 어머니의 박나물은 내가 알던 어떤 반찬과도 닮지 않은 음식이었다.

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, 나는 종종 그 박을 떠올렸다. 박은 겉으로 보면 단단하다.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나고, 칼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척한다. 그러나 막상 한 번 갈라지면, 그 안은 너무도 흰 속살이고, 손에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서지는 약한 결을 가지고 있다. 우리 어머니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. 가족이라는 형태를 지키려고, 흔들리는 자리에서 단단한 척 서 있어야 했던 사람. 칼을 내리꼈던 그 얇은 팔도, 실은 박처럼 안쪽에 흰 속살을 감추고 있었을 것이다.

어머니는 지금 그 가부장적인 집을 벗어나, 혼자서 자신만의 박자로 살아가고 있다. 이전보다 자주 웃고, 가끔은 내가 모르던 농담도 한다.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. 그러나 동시에, 단단해지려고 애써온 그 마음의 안쪽이 여전히 흰 속살로 남아 있을 것을 안다. 박

처럼, 누군가 손가락을 가만히 밀어 넣으면 조용히 떠올라올 그런 결의 마음이다. 그래서 날이 더워지면 나는 박나물이 먹고 싶어진다. 정확히는, 박나물을 만들어주던 그 여름 부엌의 어머니가, 그리고 그날의 옥빛 박이 떠오른다. 차가운 박 한 점에 담겨 있던 어머니의 여름을, 나는 아직 다 먹지 못한 것 같다.



본가 지붕 위에서 자라던 박